논어 7편 술이 1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飯疏食，飲水，曲肱而枕之，樂亦在其中矣。不義而富且貴，於我如浮雲。」

독음 · 자왈 반소사 음수 곡굉이침지 락역재기중의 불의이부차귀 어아여부운

쉬운 풀이(요약) · 거친 밥과 물, 굽힌 팔을 베개 삼는 생활에도 즐거움이 있다. 의롭지 않은 부귀는 뜬구름처럼 여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飯 밥 반 반 / 疏 뚫릴 소 소

食 밥 식 식 / 飮 마실 음 음 / 水 물 수 수 / 曲 굽을 곡 곡

肱 팔뚝 굉 굉 / 而 말이을 이 / 枕 베개 침 침 / 之 갈 지

樂 즐길 락 / 亦 또 역 / 在 있을 재 재 / 其 그 기

中 가운데 중 중 / 矣 어조사 의 / 不 아닐 불 / 義 옳을 의 의

富 가멸 부 부 / 且 또 차 차 / 貴 높을 귀 귀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我 자기 아 아 / 如 같을 여 여 / 浮 뜰 부 부 / 雲 구름 운 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